

전기 원가 2배 상승은 과도한 주장이며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다각도로 준비중

2026년 4월 15일자 조선일보 <중동 전쟁 2차 쇼크, 전기 원가 2배 뚝다>
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□ 보도 내용

- 동북아 액화천연가스(LNG)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,
100원대였던 전력시장가격(SMP*)도 200원이 넘을 전망
* System Marginal Price :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전력이 거래되는 가격
- “전기원가 2배 상승” 등 제목 하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 언급

□ 설명 내용

- ① LNG 현물가격의 변화가 전력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님
 - 국내 LNG 도입은 장기계약*이 약 80%를 차지하며, 기사에서 인용한 JKM**은 현물가격 지표로 국내 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 - * 80% 이상 국제 유가(JCC; Japan Crude Cocktail, Brent) 연동,
그 외 美 천연가스 가격(HH; Henry Hub) 연동
 - ** JKM(Japan Korea Marker) : 아시아 LNG 가격 지표
 - 전력시장가격(SMP)은 유가·LNG 가격 외에도 전력수요 변화, 발전원별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비중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,
LNG 도입가격 변화폭과 SMP 변화폭은 다를 수 있음

- LNG 가격 상승에 따라 SMP가 변화하더라도, 한전의 전력 구입 중 약 60%는 SMP 영향이 제한되는 석탄발전 등으로, SMP 변화의 영향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음
 - 현재 국제 유연탄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던 점에서도 현재 상황과 차이
 - * 유연탄 가격(\$/톤, 뉴캐슬) : ('22년) 363 ↔ ('26.4.10) 136
 - 2022년 연평균 SMP는 196.7원이었던 반면, 2026년 4월 1일부터 15일간 평균 SMP는 119.8원으로 중동 전쟁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
- ②** 정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,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전력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
- 정비 중 원전의 적기 재가동, 석탄발전 운영방식 개선, 폐지 예정 노후 석탄발전기 운영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LNG 발전량을 필요최소화
 -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LNG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적절한 수준의 현물 구매 등 통해 가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양지 (044-203-3910)
		담당자	사무관	조우신 (044-203-3913)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한주현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배 (044-203-5216)